## 시 강대선

### 잘 익은 감을 바라보는 방향

불그족족
잘 익은 감 하나 나를 흔들길래
두 갈래 가지 틈에 힘껏 발을 얹고 올라섰다

이제 됐다,
손을 뻗어 따려고 보니
잘 익은 옆구리가 썩어 있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잘 익어 먹음직스럽게 보이던
위쪽의 숨은 허방

불그족족
귀가 솔깃해지는
그럴싸한 이야기도
가려진 쪽이 있을 것 같아

섣불리 고개 끄덕이며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약력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시와 사람'으로 등단,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여수해양문학상 대상, 8회 직지소설문학상 대상
▲김우종 문학상, 한국가사문학상 등 수상
▲시집 '메타자본세콰이어 신전' 외 4권

## 시 문수봉

### 조각난 하늘

소나무 가지 끝에
살짝 숨어 버린
파란 하늘

푸른 바다처럼
아름답고
눈이 부시다

그 바다위에
점점이 흩어진
조각난 구름은

수채화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숲 속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흐른다

약력

▲한국수필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수필문학 회원
▲허균 문학상, 영호남문학상, 연암문화예술상
▲시집 '빗방울꽃' 외 1권, 수필집 '사랑과 증오의 사잇길' 외 1권, 소설집 '따이한의 사랑과 눈물' 외 1권

## 시 이삼문

### 자연의 노래

그저 그런대로 두세요

꽃을 향한 숲이요
숲을 향한 꽃이라
늘 저 절로 아름다워 집니다
이 누리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모습으로 미소 지을 때
먼 먼 꿈길에 졸고있는
숱한 생명들이 기지개를 폅니다
노을이 아슴아슴 익어가는 개펄도
대지의 숨소리 싱그러운 곶자왈도
빛이 있어 어둠을 알고
바람이 있어 고요를 압니다
육지를 향한 바다요
바다를 향한 육지라
늘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대로 두세요.

약력

▲문학예술 시 등단
▲곡성문인협회장
▲광주 전남 문학예술 작가회장
▲전남문학상 수상

## 수필 박안수

### 성공한 사람

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난다. 신기술이나 신약 개발, 예체능 활동으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 등 각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존재가 너무 커서 평범한 사람은 가끔씩은 주눅이 든다. 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그래도 나 같은 보통사람들이 더 많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어느 날 주변의 평범한 생선장수 아주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다 어쩌면 이 분도 성공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공한 사람이 꼭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보통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깨우침이라고나 할까.

명절에는 집집마다 전을 부친다. 대개는 요리 실력은 없으나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이 전판을 책임지게 된다. 널찍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각종 전을 지져낸다. 집안에 퍼지는 기름 냄새는 입이 궁금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 전의 따끈하고 고소한 맛에 모두들 은근슬쩍 지나치며 한 개씩 집어가서 맛을 보느라 채반의 전의 개수는 엔간해서는 늘어나지 않는다.

언니가 부쳐내는 동태전은 유난히 맛이 좋았다. 명절 때는 동태전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특별히 내 몫을 따로 싸주기까지 했다. 얻어온 전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껴서 데워먹었다. 생선살이 쫀득하고 씹는 맛과 감칠맛이 있어서 입맛이 없을 때는 좋은 반찬이 되었다.

어느 해부터인가 언니의 동태전이 생선살이 푸석거리고 심심해졌다. 나는 전이 맛이 없어졌다고 나이 들어 손맛이 변한 것이 아니냐고 투덜대었다. 언니는 '이제 예전의 그 전은 먹을 수 없어' 했다.

언니는 명절마다 오랜 단골인 아주머니에게서 동태포를 떴다. 대목인지라 아주머니의 단골들도 전감을 사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시장의 다른 가게들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도 한참을 기다려서야 전감을 가져갈 수 있었다. 줄 선 사람들은 다 아주머니의 동태포가 특별히 맛있다는 것을 아는 셈이었다.

어쩌다 한 번 언니와 함께 동태포를 뜨러 갔다가 기다리기에 지쳐 짜증을 낸 적도 있었다. 전감 하나를 사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다른 가게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수십 년 동안 시장의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다. 자그마한 키에 항상 웃는 얼굴인 아주머니는 자신이 취급하는 생선에 자부심이 많으셨다. 오랜 세월 생선을 다룬 경험으로 맛이 좋은 동태만 미리 골라서 냉동고에 차곡차곡 모았다. 명절 대목이 되면 색깔이 검고 살이 탄탄한 동태를 깔끔하게 손질한 후 포를 떠서 소금 간까지 해서 바로 부쳐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덤으로 탕 끓여 먹으라고 포 뜨고 남은 뼈와 머리까지 꼭 챙겨주셨다. 귀찮아서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맛있을 테니까 가져가서 끓여 먹어봐' 하셨다.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탕은 맛이 좋았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 곧바로 시장에 나오실 줄 알았는데 삼 년째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다시 생선포를 뜨러 시장에 나오실 건강은 안 되나 보았다.

명절이 되면 맛있는 전을 위해 백화점이나 큰 시장에 가서 신중하게 전감을 사와 보지만 결과는 늘 실패다. 예전의 그 맛이 나지 않는다. 내 입맛이 특별히 더 까다로워진 것은 아니니 생선의 맛이 떨어진 것이 원인일 것이다.

문득 아주머니는 참 성공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니 말이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생선장사라는 자기 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안심할 수 있는 맛난 먹을거리를 꾸준히 제공해 주셨으니 말이다.

성공이라는 것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아주머니는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보통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공의 결과물이 파급력이 있는 업적을 이뤄낸 이들도 대단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 전문가가 된 보통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약력

▲한국문인협회회원
▲광주광역시문인협회회원
▲광주여류수필회원

### 〈평설 몇 마디〉 (박덕은 문학평론가)

▲시 '잘 익은 감을 바라보는 방향'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감나무 아래서 볼그족족 잘 익은 감 하나를 쳐다본다. 마음이 흔들린 시적 화자는 나뭇가지 사이로 두 발 디디고 올라간다. 거기서 손을 뻗어 감을 따려고 했더니, 그 감 옆구리가 썩어 있다. 먹음직스러운 감의 숨겨진 허방을 보고 실망한다. 그 순간 세상의 그럴싸한 이야기,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 속, 거기에도 감의 썩은 허방 같은 세계가 가려져 있을 거라는 깨달음에 이른다. 시적 형상화를 통해 다다른 깨달음이 어쩌면 그릇된 세계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큼한 사색 방울을 마시게 해주고 있다. 미적 가치의 그릇에 담기는 의미 방울이 이렇듯 진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을 때, 아주 싱그럽고 향긋하다.

▲시 '조각난 하늘'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소나무 가지 끝에 살짝 숨어 있는 파란 하늘을 바라본다. 그 하늘이 마치 푸른 바다처럼 아름답고 눈부시다. 그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구름, 그나마 조각나 있다. 그게 수채화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고, 숲속에는 고요한 침묵만 흐르고 있는 정경, 바라보는 눈길도 마음도 가슴도 정적이 흐른다. 소음도 아우성도 아귀다툼도 없는 세상. 이게 진정 시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까. 현대사회의 각박한 현실에 고요와 부드러움과 싱그러움을 안겨 줄 수 있는 장르가 어쩌면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인류의 흐름을 사랑스럽게 우아하게 상큼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세계가 바로 시라는 장르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 참 좋다.

▲시 '자연의 노래' 이 시에서의 시적 화자는 자연을 그저 그런대로 두라고 조언하고 있다. 꽃을 향한 숲, 숲을 향한 꽃은 가만 놔 둬도, 저절로 아름다워진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렇다. 인간이 손만 안 대면,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 나간다. 서로 미소 지으며, 서로 지켜 주며, 기지개를 펴며 살아간다. 노을이 익어 가는 개펄도, 대지의 숨소리가 싱그러운 곶자왈도 스스로 아름다운 정경을 다듬으며 잘 지낸다. 빛과 어둠, 바람과 고요, 육지와 바다, 이들 모두 늘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스스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인간들이여, 자연을 그저 그런대로 놔 두라. 이제 그만 훼손하고 파괴하고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라. 시적 형상화를 통해, 강력한 자연 보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 자연에게 참 고마운 시라서, 더욱 행복하게 한다.

▲수필 '성공한 사람' 이 수필에서는 성공한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는 사람만 성공한 사람일까. 작가는 평범한 생선장수 아주머니에게 눈길을 고정하고 있다. 명절 때마다 먹어보는 동태전, 특히 언니가 부쳐내는 동태전이 유난히 맛이 좋았는데, 언젠가부터 그 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한다. 알고 보니, 그 동태전감을 공급해 주는 시장의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삼 년째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그 전감을 구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를 통해 깨달은 바는 바로 믿을 만한 생선포를 수십 년 동안 시장의 좌판에서 팔아온 생선장수 아주머니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아주머니도 성공한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깨달음의 방으로 안내하고 있는 수필, 이런 수필이 우리 곁에 있어 마냥 뿌듯하다. 세상을 보다 넓게 보다 다채롭게 보다 따스한 각도로 바라보게 하는 수필이어서 더더욱 행복하다.